

광주시, “추억의 광주사직공원, 미디어아트와 만나다”

‘사직 빛의 숲’ 점등식 개최...830m 구간 11개 공간 조성
‘안녕·풍요 기원’ 사직단 역사적 소재 ‘소망은하수’ 콘셉트
G타워 ‘대한민국 밤밤곡곡100’ 선정...야간경관명소 기대

추억의 광주사직공원이 미디어아트와 만나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월29일 강기정 시장과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3권역 ‘사직 빛의 숲’ 점등식을 개최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사직 빛의 숲’은 사직공원 내 기존 산책로 830m 구간을 미디어아트 야간경관 코스(관람시간 1시간 소요)로 개발, 지(G)타워를 포함한 총 11개의 메인 공간과 5개의 서브공간으로 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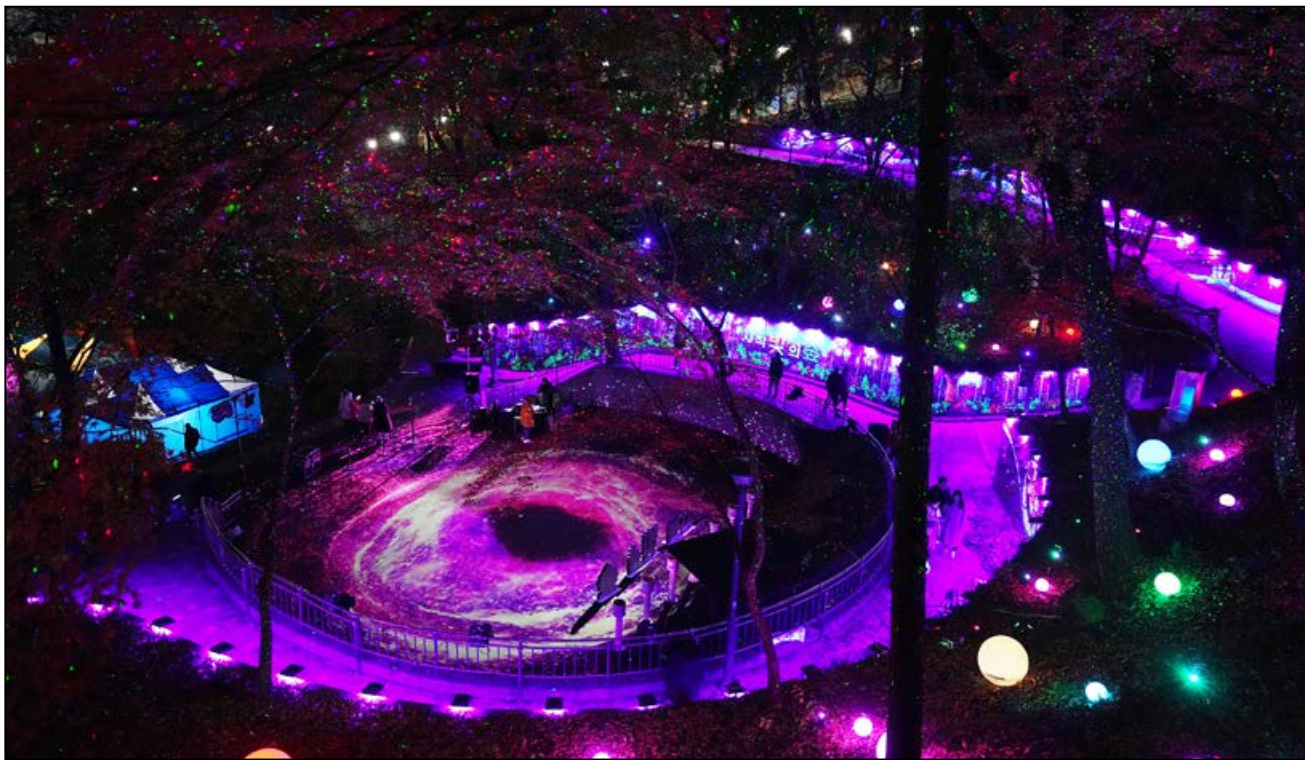
하절기에는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6시30분

부터 밤 10시30분까지 무료 운영한다.

‘사직 빛의 숲’ 미디어아트는 예부터 나라의 안녕과 번영, 풍요를 하늘에 기원하던 사직단의 역사적 소재를 활용,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많은 소망들이 하늘의 별이 돼 사직공원에 은하수로 쏟아지는 콘셉트로 구성했다.

조명·영상·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융복합 콘텐츠를 구축하고 관람객의 동작에 반응하는 쌍방향(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강기정 시장은 “예로부터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사직단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사직 빛의 숲’으로 새롭게 탄생한 만큼 추억과 휴식의 공간을 넘어 행복과 소망의 공간이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월29일 강기정 시장과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3권역 ‘사직 빛의 숲’ 점등식을 개최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민이 생활공간에서 미디어아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준공한 창의벨트 1, 2권역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와 금남공원에 ‘민주와 인권’, ‘힐링과 치유’라는 권역별 주제로 조성됐다.

3, 4권역은 ‘광주의 시간 여행지’를 주제로 사직공원과 양림동 일대에 야간경관이 조성됐다.

/이유빈 기자

현대차그룹, ‘2023 탑기어 어워즈’서 현대차 아이오닉 5 N·기아 EV9 수상



올해의 패밀리카로 선정된 EV9은 E-GMP에 기반한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기아가 글로벌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플래그십 전동화 SUV다. 99.8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501km 주행이 가능하다.(19인치 휠 2WD 모델 기준) /기아 제공

현대차그룹은 영국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탑기어(TopGear)가 주관하는 ‘2023 탑기어 어워즈(2023 TopGear.com Awards)’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 N이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기아 EV9이 ‘올해의 패밀리카(Family Car of the Year)’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차로 선정된 아이오닉 5 N은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 N에 과거부터 축적해온 최고 수준의 기술과 모

터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며 쌓아 올린 경험들을 반영해 전동화 시대에도 변치 않는 운전의 즐거움과 주행 감성을 제공하고, 고성능 전기차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전기차 시장에 청사진을 제시했다.

탑기어 올해의 차 심사위원인 폴 호렐(Paul Horrell)은 “현대차가 아이오닉 5 N을 통해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 감성을 전달하려고 한 부분이 인상적이다”라며 “뛰어난 주행 성능과 차원이 다른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아이오닉 5 N은 전기차 시대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모델”이라고 호평했다.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합산 478kW(650마력,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고 출력과 770Nm(78.5kgf·m,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대 토크를 갖췄으며,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를 비롯해 N e-쉬프트(N e-Shift),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N Active Sound +) 등 N 전용 기술이 적용됐다.

올해의 패밀리카로 선정된 EV9은 E-GMP에 기반한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기아가 글로벌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플래그십 전

동화 SUV다.

탑기어 부편집장인 올리 큐(Ollie Kew)는 “EV9은 긴 주행 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수납 공간과 편안한 시트 등을 갖춘 점이 패밀리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친환경 소재도 EV9만의 스타일로 고급스럽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EV6에 이어 EV9을 올해 11월부터 유럽 시장에 판매하며 전동화 시대에도 브랜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V9은 전동화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대형 SUV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99.8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501km 주행이 가능하다.(19인치 휠 2WD 모델 기준)

/이유빈 기자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